

비행전력이 재범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자기사고와 진로포기의 매개효과*

김 지 근¹⁾ 이 승 욱²⁾ 최 윤 영³⁾*

¹⁾연세대학교 심리과학이노베이션 연구소

²⁾동아대학교 의료상담심리학과

³⁾한양사이버대학교 청소년코칭상담학과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비행전력, 부정적 자기사고와 진로포기가 재범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 자기사고와 진로포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용자 48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매개효과 검증과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사고의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진로포기의 간접효과는 유의했다. 셋째,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사고와 진로포기는 다중매개효과는 부정적 자기사고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전력이 재범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정적 자기사고가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의미하며,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 및 추후 연구를 위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비행전력, 재범위험성, 부정적 자기사고, 진로포기, 매개효과

* 본 연구는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R1F1A1061251)

† 교신저자: 최윤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청소년코칭상담학과,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0, Tel: 02-2290-0367, E-mail: yountoto@gmail.com

재범률은 수용자 교정교화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범률에 대한 법무부 통계를 살펴보면,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복역자 비율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22% 안팎을 유지하다가,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8년에는 25.7%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법무부, 2019). 특히 전체 범죄자 중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비율은 최근 10년간 64.5%에서 67.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법무연구원, 2019). 이처럼 높은 수준의 재범률은 수용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 수용자의 재범위험성과 관련된 변인들을 확인함으로써 개입의 지점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재범위험성이란 수용자가 미래에 범죄를 다시 일으킬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정기관에서는 범죄자가 수용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형사사법 절차의 집행 단계로 들어가면, 수용자의 범죄경력, 범법행위 건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범위험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Kemshall, 1996). 우리나라 교정행정에서도 2011년도에 교정재범예측지표인 CO-REPI (Co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ex)가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재범위험성은 수용자의 성별이나 과거 범죄력과 같이 변화하지 않는 정적 위험요인과 수용자의 상태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인 동적 위험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보다 객관적인 예측을 위해서는 정적 위험요인으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된 바 있다(정태호, 허성호, 2018). 그러나 이러한 정적 위험요인은 개입을 통해 변화할 수 없는 수용자의 과거 요인이기 때문에, 교정교화를 통해 재범위험성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심리적 요인들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우 강력한 재범 예측요인으로 밝혀진 청소년기의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수용자의 '자기 자신'과 '미래 진로'에 대한 부정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수용자의 재범위험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평가와 개입의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가 재범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밝혀진 매우 강력한 재범 예측요인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기의 비행전력이다(이수정, 변지은, 2001; DeLisi, 2000; Gendreau, Little, & Goggin, 1996; Katsiyannis, Whitford, Zhang, & Gage, 2018). 즉, 청소년기의 일탈 행동과 범죄 행동 여부와 빈도가 성인 범죄의 중요한 예측지표이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까지의 범죄 행동에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강은영, 2006). 그러나 청소년기의 일탈 행동이 모두 지속적인 성인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기의 일탈적 행동은 이 시기에 발달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특징으로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해가는 과도기적 시기로, 급격한 신체적 발달과 함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과업이 증가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역할 혼란을 겪게 된다(Erickson, 1968). 즉,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지칭하는 것도 이 시기가 혼돈의 시기이며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일탈적 행동이 자신의 삶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학습하게 되며, 이 시기의 성숙은 비행을 중단하는 요인이 된다(Moffitt, 1997). 문제는 이러한 청소년기의 일탈적 행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비행을 반복하다가 비행성향이 굳어져 이후 상습적인 성인 범죄로 이어지는 것에 있다.

한편, 기존 연구들은 청소년기의 비행전력이 재범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으며, 청소년기 비행전력이 어떤 경로로 재범위험성을 높이는가를 설명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범죄와 이후 재범 간의 관계를 설명하

는 대표적인 이론인 상황의존론(State dependency perspective)과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을 기반으로, 수용자의 청소년기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청소년기 비행전력이 어떤 개인 내 메커니즘을 통해 재범위험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밝힘으로써,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초기 범죄와 이후 재범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관점으로 상황의존론(State dependency perspective)이 있다(Nagin & Paternoster, 1991). 상황의존론에서는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이후 여러 상황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후 범죄를 지속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한다. 상황의존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상황적 변화란, 처벌로 인한 자유권의 구속, 교육 기회의 차단,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 취업이나 사회 참여의 기회 제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적인 악화가 사회적 불이익을 야기하고, 이후 지속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한다. 실제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청소년기 비행 이후의 상황 악화가 지속적인 범죄에 직접적인 요인이 됨이 밝혀진 바 있다(이순래, 1995; Nagin & Paternoster, 1991).

이처럼 범죄 이후 상황변화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으며, 대표적으로 낙인 이론(Labeling theory)에서는 범죄 이후에 주위 사람들의 변화된 반응이 이차적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Lemert, 1972). 특히 법적 처벌로 인한 사회적 낙인 경험은 이후 반복적이고 심각한 비행의 주된 원인이 됨이 경험적으로도 밝혀졌으며(이동원, 2003; Kaplan & Johnson, 1991; Paramara, Cullen, & Gersten, 1986), 이는 성인기의 범죄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주장되었다(Sampson & Laub, 1993). 즉,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은 주변의 가족, 또래, 선생님 등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으며 문제아로 낙인찍힐 수 있는데, 이는 또 다른 비행과 지속

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낙인 이론에 따르면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적대적 반응은 다음의 세 가지 변화를 통해 반복적인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Liska, 1986). 첫째, 자아개념의 변화이다. 범죄자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스스로에 대해 범죄자로서 부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개인은 이러한 새로운 자아개념에 따라 일탈행위나 범죄행위를 지속하게 된다. 둘째, 고용기회의 제한이다.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취업이나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게 되며, 이는 손쉬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혹에 다시 빠져들게 함으로써 재범의 기회를 증가시킨다. 셋째, 증거집단의 변화이다. 범죄 이후의 나타나는 상황변화들은 기존의 사회적 유대를 단절시키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범죄자 집단과 교류하게 함으로써 재범을 함께 할 동료들 얻게 만든다.

따라서 범죄정책에서는 일탈행위나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따른 지속적 범죄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형법 개입의 범위를 축소하고, 비행 청소년들은 봉사기관이나 복지기관 등의 보호 아래 두는 등 대체적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이기현, 2014). 또한 낙인 이론이 주목받으면서 이에 기반한 청소년 비행과 재범위험성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범죄 이후에 나타나는 사회적 낙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들(예: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변화, 범죄자의 직업훈련과 사회적응훈련 등)을 강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반복적인 비행행동으로 경험되는 사회적 변화들에 대해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에 대한 관심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인 이론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상황적 변화인 자아개념의 변화와 고용기회의 제한과 관련한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이 재범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낙인은 부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Barreto, Ellemers, & Fiske, 2010). 사회적으로 해가 되는 사람으로 낙인찍힌 사람은 이러한 사회적 낙인을 스스로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위험한 사람으로 지각하는 자기 낙인을 형성하게 된다(Vogel, Wade, & Haake, 2006). 즉, 소속된 집단이나 사회가 부여하는 차가운 시선과 편견, 차별은 개인의 자아 개념에 손상을 입히게 되고, 이는 스스로를 문제아나 사회 부적응자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이를 극복하고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또한 스스로 제한하게 되며, 결국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도 비행전력과 부정적 자기사고, 재범 간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먼저, 청소년기에 반복적인 비행행동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신념에 영향을 줌이 밝혀졌으며(조운오, 이미정, 2011; Gllone, Jones, & Cummins, 2000), 소속 집단이나 사회로부터의 낙인 경험은 스스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arrington, 1977; Link, Struening, Todd, Rasmussen, & Phelan, 2001; Vogel et al., 2006). 또한 낮은 자존감은 범죄 행동에의 참여와 관련성이 나타났으며(Anderson, 1994; Gondolf, 1985; Long, 1990), 긍정적 자기 개념의 회복은 재범 감소와 관련이 있음이 검증되었다(Barkwell, 197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반복적인 비행전력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통해 재범위험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사고의 매개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반복적 비행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구조를 제한하게 된다. 즉, 비행 청소년과 성인 범죄자 모두에게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서 직

업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취업에 대한 기술과 역량을 넘어서 사회적 냉대와 차별 속에서 직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은 이들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특히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취업의 의지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진로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고에 대한 개입이 범죄 경력자들의 사회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비행 청소년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소수이지만, 취업을 제한하는 장벽들이 수용자의 진로포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장선숙, 2010), 취업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와 의욕이 수용자들의 직업정보 수집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한순옥, 2014), 수용자를 대상으로 진로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도록 하는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심각한 비행으로 반복적으로 보호시설에 수용되게 되면 적절한 교육의 기회와 대인관계를 통한 사회화의 기회에서 멀어지게 되며, 나중에 성인이 되더라도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순래, 박혁기, 2007). 또한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고, 이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면 다시 범죄 활동에 빠져들게 되는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 확인되었다(한명미, 2005; Anthony, Cohen, Farkas, & Gagne,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비행전력이 개인의 취업 및 직업 유지와 관련한 부정적 사고를 통해 재범위험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진로포기의 매개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재범 예방을 위한 개인 내 심리적 요인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은 인성교화를 위한 다양한 교

정교화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정기관 종사자들과 학자들은 수용자의 인성교화를 위해 학업 및 직업교육과 교정상담 및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정신교육을 인성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집중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법무연수원, 2019). 특히 집중인성프로그램 중 긍정심리 프로그램은 수용자의 긍정적 사고를 향상하여 심리적 문제 및 부적응적 사회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직업훈련과 별도로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춘 직업훈련체험프로그램은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원활한 사회복귀로의 도모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김연수, 유영재, 2016). 이처럼 수용자들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건전한 의식을 향상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기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의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본 연구는 추후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를 부정적 자기사고가 매개할 것이다. 둘째,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를 진로포기가 매개할 것이다. 셋째,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를 부정적 자기사고와 진로포기가 다중매개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IRB)로 부터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2-1040709-AB-N-01-202001-BR-003-04). 연구대상은 법무부 산하 교정기관 중 A광역시 소재 중경비시설인 P교정기관의 남성 수용자 500명이였다. 전국의 교정기관은 경비 단계 수준에 따라 S1에서 S4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P교정기관은 S4급으로 수용자의 개별처우 수준이 좋은 경비죄부터 개별처우 수준이 낮은 중범죄까지 다양한 범죄자가 수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설문 조사는 지필 검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모형에 해당하는 변인에 응답하지 않은 17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483개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 참여 전 연구목적, 절차 및 소요 시간, 참여 철회 및 중지보장, 비밀보장, 범죄기록 등 개인정보 열람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을 하고 연구에 참여하였다. 검사 실시는 7~10명 단위로 총 2달에 걸쳐 교정기관 내 분류심사과의 협조를 받아 집단검사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하는데 약 20~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으로는 소정의 영치금(2만원)이 지급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전원 남성으로 이루어졌으며, 연령은 만 16세에서 71세까지 포함되며, 평균연령은 46.5세($SD=11.45$)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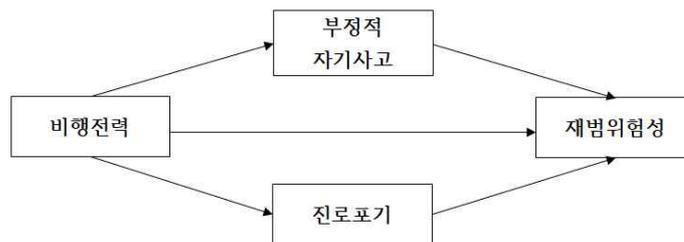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83)

구분	분류	빈도(%)
성별	남	483(100.0)
	여	0(0.0)
연령	10대	1(0.2)
	20대	52(11.1)
	30대	74(15.8)
	40대	132(28.3)
	50대	144(30.8)
	60대	64(13.7)
학력	초졸미만	13(2.7)
	초졸	69(14.3)
	중졸	127(26.3)
	고졸	215(44.5)
	대졸	59(12.2)
죄명	살인	145(30.0)
	폭력	73(15.1)
	성폭력	147(30.4)
	사기	80(16.6)
	마약	20(4.1)
	기타	18(3.7)

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비행전력

청소년기의 비행행동과 습관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수정과 변지은(2001)이 개발하고 타당화 한 교정심리검사의 하위척도인 비행전력 점수가 사용되었다. 교정심리검사는 수용자들의 재범위험성과 시설 내 처우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분류심사 검사 중 하나로, 검사 결과 사용에 사전 동의한 연구대상자의 교정심리검사 비행전력 점수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된다. 총

점은 T점수(평균: 50, 표준편차: 10)로 표준 점수화하여 사용되고 있다. 예시 문항으로는 “학창 시절에 나는 가끔 퇴학 문제로 교무실에 불려간 적이 있다”, “학창시절 문제를 일으켜 처벌(근신, 정학, 퇴학 등)을 받은 적이 있다” 등이 있다.

부정적 자기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서 Hollen과 Kendall(1980)이 제작한 자동적 사고 척도-부정형(Automatic Thought Questionnaire-N)을 권석만과 윤호균(199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0문항,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생각하지 않음~5점: 항상 생각함)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에겐 틀림없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등이 있다. 권석만과 윤호균(1994)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진로포기

미래 진로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장선숙(2010)이 O'Brien(1992)의 진로포부척도를 참조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구성된 진로포부 척도의 하위척도인 진로포기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진로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으로 “이미 전과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선숙(2010)의 연구에서 진로포부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6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4이었다.

재범위험성

수용자가 미래에 다시 범죄를 일으킬 위험성인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용자가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후 실시되는 분류

표 2. 재범위험성 척도 항목

척도 항목		
1. 성별	8. 최초 형 확정 연령	15. 입소 전 경제 상태
2. 죄명	9. 재범 기간	16. 입소 전 거주상태
3. 피해자 관계	10. 이전 범죄 출소 연령	17. 정신병원 치료경력
4. 범죄시 정신상태	11. 집행유예취소/실효 횟수	18. 학력
5. 본건 및 과거 징벌 횟수	12. 동거 횟수	19. 출소 후 재범환경
6. 전체 형기(과거포함)	13. 18세 이전 처벌 경험	20. 공권력에 대한 태도
7. 유사 죄명 횟수	14. 범죄시 직업	21. 특정 요인별 재범가능성

심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재범위험성 평가에는 2011년 법무부에서 개발된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가 전국 교정기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재범 예측에 있어 83.1%의 정확률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박종관, 2015).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태호와 허성호(2018)가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에 대한 타당화 연구를 통해 제안한 항목을 활용하여 재범위험성 수준을 산출하였다. 본 척도는 항목별로 0점~3점까지 평가되는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9번 항목의 경우 재범 기간이 3년 이상이면 0점, 6월~3년 미만은 1점, 6월 미만은 2점을 부여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총점은 42점이다. 구체적인 척도의 구성 항목은 표 2와 같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먼저 척도의 내적합치도 분석,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비행전력이 재범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 자기사고와 진로포기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개모형 및 다중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은 SPSS Process Macro(model 4)를 사용하였다(Hayes, 2017).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Hayes & Preacher, 2014).

결 과

기술통계량 및 상관분석

먼저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그리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재범위험성은 비행전력($r=.39, p<.001$), 부정적 자기사고($r=.26, p<.001$), 진로포기($r=.18, p<.001$)와는 낮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부정적 자기사고는 비행전력과 낮은 정적상관을($r=.14, p<.01$), 진로포기와는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r=.67, p<.001$). 진로포기와 비행전력은 낮은 정적상관을 보였다($r=.11, p<.05$).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가 절대값 2와 7을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Kline, 2016). 또한,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공선성 통계량을 확인해본 결과, 분산팽창인자(VIF)가 1.022에서 1.833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분산팽창요인이 10이상인 변수가 있으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므로,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간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사고의 매개효과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사고의 개별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 (2017)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model

표 3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N=483)

	1	2	3	4
1. 비행전력				
2. 부정적 자기사고	.14**			
3. 진로포기	.11*	.67***		
4. 재범위험성	.39***	.26***	.18***	
<i>M(SD)</i>	47.15(5.95)	72.46(24.80)	7.92(3.24)	15.00(6.40)
왜도	1.21	.48	.82	.36
첨도	1.48	-.44	.53	-.64

* $p < .05$, ** $p < .01$, *** $p < .001$

4)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행전력이 매개변인인 부정적 자기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601$, $SE=.188$, $p<.01$), 부정적 자기사고는 재범위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54$, $SE=.011$, $p<.001$). 또한 매개변인을 포함했을 때 비행전력이 재범위험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388$, $SE=.045$, $p<.001$), 부분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5000개의 재추출된 표본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013~.060}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부정적 자기사고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진로포기 매개효과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진로포기의 개별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 (2017)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model 4)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행전력이 매개변인인 진로포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062$, $SE=.025$, $p<.05$), 진로포기는 재범위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66$, $SE=.083$, $p<.01$). 또한 매개변인을 포함했을 때 비행전력이 재범위험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404$, $SE=.045$, $p<.001$), 부분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5000개의 재추출된 표본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003~.035}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진로포기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사고와 진로포기의 다중매개효과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사고와 진로포기의 다중매개모형(multiple mediation model)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통해 model 4로 분석하였다(Hayes, 2017). 분석 결과는 표 4에서와 같다. 첫째, 비행전력은 재범위험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421$, $SE=.045$, $p<.001$). 이는 과거 비행전력이 많은 수용자일수록 재범위험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둘째, 비행전력은 부정적 자기사고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601$, $SE=.188$, $p<.01$). 이는 비행전력이 많을수록 부정적 자기사고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셋째, 비행전력은 진로포기

표 4.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사고과 진로포기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N=483)

준거변인	예측변인	B	β	SE	t	F	R ²
재범위험성	비행전력	.421	.391	.045	9.316***	86.788***	.153
부정적 자기사고	비행전력	.601	.144	.188	3.192**	10.191**	.021
진로포기	비행전력	.062	.114	.025	2.526*	6.382*	.013
재범위험성	비행전력	.388	.361	.045	8.714***		
	부정적 자기사고	.056	.217	.014	3.904***	39.003***	.196
	진로포기	-.018	-.009	.109	-.160		

* $p < .05$, ** $p < .01$, *** $p < .001$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062$, $SE=.025$, $p<.05$). 이는 비행전력이 많을수록 진로포기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준거변인을 재범위험성으로 하여, 비행전력과 부정적 자기사고, 진로포기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 비행전력은 재범위험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388$, $SE=.045$, $p<.001$), 부정적 자기사고 또한 재범위험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B=.056$, $SE=.014$, $p<.001$), 진로포기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B=-.018$, $SE=.109$, ns). 이는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를 부정적 자기사고가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행전력이 부정적 자기사고와 진로포기를 매개하여, 재범위험성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고(Hayes & Preacher, 2014), 부트스트래핑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수는 5,000개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부

정적 자기사고의 간접효과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부정적 자기사고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진로포기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여 진로포기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전력이 재범위험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사고와 진로포기의 다중매개효과 결과는 부정적 자기사고의 매개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교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정교화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용자들로 하여금 사회에 복귀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인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즉, 수용자가 출

표 5.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사고과 진로포기의 다중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483)

매개경로	Effect	Boot SE	95% LLCI	95% ULCI
총효과	.421	.045	.332	.509
직접효과	.388	.045	.301	.476
비행전력 → 부정적 자기사고 → 재범위험성	.034	.014	.012	.066
비행전력 → 진로포기 → 재범위험성	-.001	.007	-.017	.013

소 후 재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낮추는 것은 교정기관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용자들의 재범위험성 수준을 예측하고, 재범위험성과 관련 있는 위험요인들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재범위험성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이해는 추후 평가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더 유용할 수 있다(Corff & Toupin,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청소년기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강력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비행전력이 어떠한 개인 내 심리적 매커니즘에 의해 재범위험성과 관련될 수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부정적 자기사고와 진로포기는 각각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두 매개변인의 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해본 결과, 부정적 자기사고에서만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재범위험성과 관련된 심리학적 개입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기 비행전력은 재범위험성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비행전력은 재범위험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 비행전력이 성인기 문제행동과 상습적 범죄를 예측하는 주요한 위험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이수정, 변지은, 2001; DeLisi, 2000; Gendreau et al., 1996; Katsiyannis et al., 2018). 본 연구 결과에서도 어린 시절 습관적 비행습성이나 비행행동에 연루된 경험이 이후 성인기 상습적 범죄행동의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됨으로써, 비행전력이 재범위험성에 있어 중요한 예측 변인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청소년기의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사고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의 반복적인 비행행동이 성인기 범죄 경력으로 발전함에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및 신념이 중요한 변인임으로 보여준다. 부정적인 자기 개념

과 범죄 행동에의 참여와의 관련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강조되면서(Anderson, 1994; Gondolf, 1985; Long, 1990), 반복적인 비행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자기 개념과 자존감의 문제 또한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경험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의 비행전력이 부정적인 자기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다시 반복적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강조되어 왔다(조윤오, 이미정, 2011; Gllone et al., 2000). 본 연구 결과에서도 청소년기 비행전력과 상습적 범죄의 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확인된 만큼, 비행 청소년과 성인 범죄자의 부정적 자기 개념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낙인 이론을 포함한 상황의존적 관점에서는 비행 청소년들이 법적 처벌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의해 문제아라는 낙인을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지속적인 비행행동과 성인기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이동원, 2003; Paramara et al., 1986; Kaplan & Johnson, 1991; Sampson & Laub, 1993). 따라서 교정기관에서는 사회적 낙인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과자에 대한 고용 및 교육의 기회 등에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규제하는 법 조항을 시행함으로써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 변화에도 힘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자들은 사회에서 냉담한 사회적 시선과 차별을 주된 어려움으로 보고하고 있다(박선영, 2012). 즉, 비행 청소년이나 범죄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이 필연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상황적 변화라면, 상황적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에서 한 발 나아가서 상황의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의 부정적 사고와 감정에의 개입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도 수용자의 자아개념 변화에 대한 개입이 재범 감

소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Barkwell, 1976). 따라서 교정기관에서는 비행 청소년과 성인 범죄자의 적응적인 사회복귀를 조력하기 위해 부정적인 자아상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기의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진로포기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비행행동은 적절한 학교 교육과 사회화의 기회에서 점차 멀어지게 만들며, 따라서 성인이 되더라도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어려워져 범죄로 빠져들 위험이 커지게 된다(이순래, 박혁기, 2007). 선행연구에서도 수용자들이 출소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취업의 제한과 직업의 불안정성, 직업 유지의 실패가 재범의 가능성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이윤호, 김대권, 2007; Anthony et al., 2002). 따라서 교정기관에서는 출소 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출소자의 직업적 안정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취업은 쉽지 않은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한순욱, 2017). 즉, 비행 청소년이나 성인 범죄자들이 직업을 통한 사회 적응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직면하게 될 취업의 제한 등의 어려움에 맞서서 지속적으로 구직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와 의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청소년기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고가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확인된 본 연구 결과 또한 비행 청소년과 성인 범죄자에게 진로에 대한 사고에의 개입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직업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나 가치관 등 인성 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이 기술 습득에서 인성교육과의 연계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편, 수용자들의 미래 진로에 대한 인식이나 신념을

개선하는 개입은 아직 프로그램 내 부가적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목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용자들이 진로에 대한 왜곡된 자기인식을 개선하고, 심리적/환경적 장애요인을 극복함으로써 합리적인 진로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다(이승호, 2020).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들은 출소 후 구직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요인을 적게 인식하고, 구직에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적극적인 구직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Lent & Brown, 2013). 또한 수용자들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에서 자기이해와 장점이해를 1순위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박가열, 최영순, 박선미, 김지현, 2011). 따라서 취업지원을 위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이 단순히 기술적 훈련만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에 대한 부정적 기대를 감소시킴으로써 구직활동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 동기를 키워주는 상담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방안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가로 부정적 자기사고와 진로포기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기사고 변인에서만 유의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지속적인 범죄행위와 특히 더 관련 있는 위험요소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에 대한 구조화된 임상적 개입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미 국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개입 효과에 대한 보고가 축적되어 왔으며, 특히 인지행동치료(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프로그램은 재범 감소에 가장 효과적임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다(Golden, 2002; Little, Robinson, & Burnette, 1994; Tong & Farrington 2006; Walters 2005). 인지행동치료는

개인의 사고가 기분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가정 하에, 사고의 변화가 행동, 감정, 그리고 근원적인 신념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사고방식의 변화를 목표로 임상적 개입을 한다. 즉, 이러한 프로그램은 수용자들이 스스로를 사회 부적응자로 간주하는 부정적 사고를 변화시키고, 긍정적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것을 돕는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Oser 등(2006)의 연구에서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수용자의 자존감 향상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지만,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였다. 따라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개입 프로그램은, 보다 초점이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전문화된 개입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수용자의 청소년기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에서 어떤 개인 내 심리적 기제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재범과 관련한 교육적, 상담적 개입 방향에 시사점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기 비행전력이 재범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파악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 지속과 중지에 개입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했을 뿐, 성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어떤 개인 내 심리적 기제가 청소년기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지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물론 수용자의 청소년기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개의 심리적 변인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의 축적은 청소년기 비행전력과 미래 범죄행위의 인과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형성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며, 나아가 재범과 관련한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개인 내 심리적 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이러한 개인 내 변인은 개입을 통해서 변화 가능한 요인으로 효과적인

평가와 개입 프로그램의 초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Corff & Toupin, 2009).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행전력과 재범위험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인으로 '부정적 자기사고'와 '진로포기'의 효과를 탐색하였다. 비행 청소년 및 성인 범죄자의 부정적 자기개념과 직업 영역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있지만(Anthony et al., 2002; Levy, 1997; Sheridan, 1996), 성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자기 자신'과 '진로'에 대한 부정적 사고에 초점을 맞춰 평가한 '부정적 자기사고'와 '진로포기'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부재하였다. 또한 비록 교정기관 프로그램에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감수성 훈련, 인간관계 회복, 도덕성 회복 등의 집중인성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다양한 취업지원 및 심리상담 등이 지원되고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범죄 행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에 근거하게 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재범위험성과 관련된 개인 내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용자들이 스스로 변화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비행전력, 부정적 자기사고, 진로포기에 대한 자료가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이러한 지필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반응경향성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거나 또는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행동 관찰이나 객관적인 전과 자료 등을 통해서 측정의 객관성을 보완하는 방안이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편의표집에 의해 A광역시 P교정기관의 남성 수용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P교정기관은 경범죄부터 중범죄까지 다양한 수용자가 수감되어 있

어, 수용자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한 측면이 있다. 또한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한국의 소년 범죄자의 남자 비율은 82.5%에 이르고, 성인 수형자의 남자 비율은 93.4%를 차지하는 등, 남성 범죄자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법무부, 2019). 그러나 편의표집에 의한 연구 대상자 선정으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수용자에게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선행 메타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재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이 확인된 바(Collins, 2010), 성별에 따라 연구 결과가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자 수용자를 포함한 무선 표집을 통해 본 연구모형을 검증해 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연구 변인 간 인과관계를 설정하였으나, 연구모형 검증에 있어 횡단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 대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추후 연구에서 종단연구나 실험연구를 설계하여 수용자의 심리적 요인과 이에 대한 개입이 실제 재범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검증된다면, 재범 예방에 대한 개입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적절한 교정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으로 이어질 때 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경험적 연구와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교정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김지근은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연세대학교 심리과학이노베이션 연구소에 전문연구원으로 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전생애 진로발달과정에서 전환기 진로적응에 요구되는 심리적 기제이다.

이승욱은 동아대학교에서 의료상담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법무부 부산교도소 심리치료팀에서 심리평가 및 치료를 맡고 있다. 주요 연구주제는 수용자의 재범위험성을 분류하기 위한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최윤영은 Univeris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에서 심리측정, 통계, 평가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양사이버대학교 청소년코칭상담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주제는 머신러닝, CAT, 베이지안네트워크, 검사타당화이다.

참고문헌

강은영 (2005). 경력범죄자의 성인초기 범죄지속과 증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권석만, 윤호균 (1994). 한국판 자동적 사고척도의 개발과 활용. *학생연구*, 29(1), 10-25.

김연수, 유영재 (2016).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연구. *교정연구*, 26(3), 131-156.

박가열, 최영순, 박선미, 김지현 (2011). 출소예정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최종보고서.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박선영 (2012). 여성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성별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미국 여성 수형자의 사례. *한국범죄학*, 3(2), 41-66.

박종관 (2015).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법무부 (2019). *법무연감*.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7>

법무연수원 (2019). **2019 범죄백서**.
<https://www.ioj.go.kr/homepage/information/DataAction.do?method=view>

이기현 (2015). 낙인이론의 재조명. *홍익법학*, 16(3), 371-400.

- 이동원 (2003).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관한 고찰: 범행의 발전양상과 재범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5, 335-367.
- 이수정, 변지은 (2001). 수형자 분류심사 도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349-387.
- 이순래 (1995) 범죄지속의 원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6(3), 107-138.
- 이순래, 박혁기 (2007). 비행소년의 발전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학*, 1(2), 149-190.
- 이승호 (2020).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출소자들의 진로장벽 인식과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호, 김대권 (2007). 전과자들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경험연구. *사회과학연구*, 13(2), 27-60.
- 장선숙 (2010). 수형자의 지각된 취업제한장벽이 진로포부형태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태현, 허성호 (2018). 교정심리검사 및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법무부.
- 조윤오, 이미정 (2011). 경찰다이버전 단계에서의 소년비행과 자존감과의 관계. *한국공안행정학회지*, 43, 223-251.
- 한명미 (2005). 출소자의 일상생활 경험.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순옥 (2014). 갱생보호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립의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33, 55-88
- Anderson, E. (1994). *Code of the street*. New York: Norton.
- Anthony, W., Cohen, M., Farkas, M., & Gagne, C. (2002). *Psychiatric Rehabilitation (2nd Ed)*. MA: Boston University, Center for Psychiatric.
- Barkwell, L. J. (1976). Differential treatment of juveniles on probation: An evaluative study.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and Corrections*, 18(4), 363-378.
<https://doi.org/10.3138/cjcc.18.4.363>
- Barreto, M., Ellemers, N., & Fiske, S. (2010). "What did you say, and who do you think you are?" How power differences affect emotional reactions to prejudice. *Journal of Social Issues*, 66(3), 477-492.
<https://doi.org/10.1111/j.1540-4560.2010.01657.x>
- Collins, R. E. (2010). The effect of gender on violent and nonviolent recidivism: A meta-analysi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4), 675-684.
<https://doi.org/10.1016/j.jcrimjus.2010.04.041>
- Corff, L. Y., & Toupin, J. (2009). Comparing persistent juvenile delinquents and normative peers with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 1105-1108.
<https://doi.org/10.1016/j.jrp.2009.06.011>
- DeLisi, S. (2000). *1000 Criminal career: Explaining habitual criminal offend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olorado.
- Erikson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arrington, D. P. (1977). The effects of Public labelling.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17, 112-125.
<https://doi.org/10.1093/oxfordjournals.bjc.a046802>
- Gendreau, P., Little, T., & Goggin, C. (1996). A Meta-analysis of the predictors of adult Offender recidivism: What works! *Criminology*, 34(4), 575-608.
<https://doi.org/10.1111/j.1745-9125.1996.tb01220.x>
- Golden, L. (2002). *Evaluation of the efficacy of a cognitive behavioral program. For offenders on probation: Thinking for a Chan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 ar Dallas.
- Gondolf, E. W. (1985). *Men who batter*. Holmes Beach, FL: Learning Publications.
- Gullone, E., Jones, T., & Cummins, R. (2000). Coping styles and prison experience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male prisoners.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7(1), 170-181.

- <https://doi.org/10.1080/13218710009524983>
- Hayes, A. F. (2017). *An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Y: Guilford Press.
- Hayes, A. F., & Preacher, K. J. (2014).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with a multicategorical independent variable.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67(3), 451-470. <https://doi.org/10.1111/bmsp.12028>
- Hollen, S. D., & Kendall, P. C. (1980). Cognitive self-statements in depression: Development of an automatic thoughts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4(4), 383-395.
- Kaplan, H. B., & Johnson, R. J. (1991). Negative social sanctions and juvenile delinquency: Effects of labeling in a model of deviant behavior. *Social Science Quarterly*, 72, 98-122.
- Katsiyannis, A., Whitford, D. K., Zhang, D., & Gage, N. A. (2017). Adult recidivism in United States: A meta-analysis 1994-2015.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 686-696. <https://doi.org/10.1007/s10826-017-0945-8>
- Kemshall, H. (1996). *Reviewing Risk: A Review of Research on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Risk and Dangerousness: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in the Probation Service*. London: Jessica Kingsley. London: Home Office.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Guilford Press.
- Lemert, E. (1972).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2nd Ed.)*. NJ: Prentice-Hall.
- Link, B. G., Struening, E. L., Todd, S. N., Rasmussen, S., & Phelan, J. C. (2001). Stigma as a barrier to recovery: the consequences of stigma for the self-esteem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Psychiatric Services*, 52(12), 1621-1626. <https://doi.org/10.1176/appi.ps.52.12.1621>
- Liska, A. E. (1986). 일탈의 사회학 (장상희 역). 경문사.
- Little, G. L., Robinson, K. D., & Burnette, K. D. (1994). Treating offenders with cognitive-behavioral therapy: 5-year recidivism outcome data on MRT.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Review*, 3, 1-3.
- Lent, R. W., & Brown, S. D. (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 557-568. <https://doi.org/10.1037/a0033446>.
- Levy, K. S. (1997). Multifactorial self-concept and delinquency in Australian adolescent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7, 227-283. <https://doi.org/10.1080/00224549709595439>
- Long, D. E. (1990). *The anatomy of terrorism*. New York: Free Press.
- Moffitt, T. E. (1997).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offending: A complementary pair of developmental theories*.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 Nagin, D., & Patemoster, R. (1991). On the relationship of past to future participation in delinquency. *Criminology*, 29(3), 163-189. <https://doi.org/10.1111/j.1745-9125.1991.tb01063.x>
- Oates, R. K., & Forrest, D. (1985). Self esteem and early background of abusive mothers. *Child Abuse and Neglect*, 9, 89-93.
- O'Brien, K. M. (1992). *Career Aspiration Scale*. (Available from K. M. O'Brien, Psychology Department,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D 20742).
- Oser, C. B. (2006). The criminal offending and self-esteem nexus: Which version of the self-esteem theory is supported?. *The Prison Journal*, 86, 344-363. <https://doi.org/10.1177/0032885506291024>

- Paramara, F., Cullen, F. T., & Gersten, J. C. (1986). The effects of police and mental health intervention on juvenile justic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90-106.
<https://doi.org/10.2307/2136505>
- Sampson, R. J., & Laub, J. H. (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heridan, M. J. (1996). Comparison of the life experiences and personal functioning of men and women in prison.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6, 123-134. <https://doi.org/10.1606/1044-3894.942>
- Tong, L. S. J., & Farrington, D. P. (2006). How effective is the "Reasoning and Rehabilitation" program in reducing offending? A meta-analysis of evaluations in four countries. *Psychology, Crime & Law*, 12, 3-24.
<http://doi.org.ssl.access.yonsei.ac.kr:8080/10.1080/10683160512331316253>
- Vogel, D. L., Wade, N. G., & Haake, S. (2006). Measuring the self-stigma associated with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3), 335-337.
<https://doi.org/10.1037/0022-0167.53.3.325>
- Walters, G. D. (2005). Recidivism in released lifestyle change program participant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2, 50-68.
<https://doi.org/10.1177/0093854804270628>

1 차원고접수 : 2020. 09. 14.

수정원고접수 : 2020. 12. 09.

최종게재결정 : 2021. 01. 30.

The Relationships between Preadult Delinquency Propensity and Offender Recidivism Risk: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Thoughts about Self and Career Abandonment

Ji Geun Kim¹⁾

Seung Uk Lee²⁾

Younyoung Choi³⁾

¹⁾Institute of Psychological Innovation, Yonsei University

²⁾Department of Medical Administration & Psychotherapy, Donga University

³⁾Department of Youth Coaching Counseling, Hanyang Cyber University

The study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thoughts about self and career abandonment between preadult delinquency propensity and offender recidivism risk. The survey was conducted on 483 offender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the SPSS 25.0 program.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was performed using the Process Macro of Hayes (Model 4).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direct effect of negative thoughts about self between preadult delinquency propensity and offender recidivism risk was significant. Second, career abandonment had an indirect effect between preadult delinquency propensity and offender recidivism risk. Third, double-mediated effects of negative thoughts about self and career abandonment between preadult delinquency propensity and offender recidivism risk was found to be only significant in negative thoughts about self. Based on the above finding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preadult delinquency propensity, offender recidivism risk, negative thoughts about self, career abandonment, mediating effect